만해대상 평화대상에 '세이브 우크라이나'

동국대, 만해대상 수상자 발표
실천대상엔 더프라미스, 곽병은 천양희 시인 · 김동호, 문예대상
8월 12일 만해축전에서 시상식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27회 만해대상 평화대상에 우크라이나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선정됐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공영대 · 동국대 교무부총장)는 '제27회 만해대상'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올해 평화대상은 우크라이나의 NGO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수상하며 불교계 국제구호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와 곽병은 의료복지협동조합 밝음의원 원장이 실천대상을 받는다. 문예대상은 천양희 시인과 김동호 前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평화대상 수상자인 '세이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로 납치된 어린이-청소년을 구출하는 단체다. '세이브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해에 미콜라 쿠벨라에 의해 창립됐다. 창립 이후 '세이브 우크라이나'는 9만 명의 난민들에게 장단기 쉼터를 제공하고 직업 교육과 트라우마 치료 등의 활동을 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납치 어린이 구출에 뛰어들었다. '세이브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9일 31명의 어린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23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와 러시아 점령지에서 구출해 집으로 귀환시켰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더프라미스'는 국내외 지진, 태풍, 전쟁 등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불교계 대표적 국제구호협력기구다. 2008년 법등 스님이 이사장을 맡아 창립한 '더프라미스'는 재난 긴급 구호 단체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긴급구호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네팔 대지진, 2021년 미얀마 쿠데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현장에 직접 구호팀을 파견해 이재민 구호활동을 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포항 지진을 비롯해 2020년 여름 수해 현장, 2023년 강릉 산불에 이르기까지 구호팀이 직접 달려갔다.

함께 실천대상을 수상한 곽병은 원장은 30여 년 전부터 사재를 털어 강원도 원주에서 장애인과 홀몸노인들을 돌보는 봉사를 묵묵히 해오며 '원주의 슈바이처'로 불려왔다.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경기도 안양 성나자로마을에서 한센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했다. 사회복지시설 갈거리사랑촌, 무료급식소인 십시일반, 노숙인센터를 설립 및 운영했고 현재 갈거리협동조합을 통해 노숙인들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일도 시작했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천양희 시인은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소월문학상, 박두진문학상 등 여러 문학상을 받은 대한민국 대표 여성 시인이다. 가식 없이 수수하고 진솔한 언어로 독자들의 마음을 감싸 안으며, 젊은 날의 상처를 진솔하면서도 서정적인 언어로 바꿔내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잠언시집 〈그리움은 돌아갈 자리가 없다(1998)〉 〈너무 많은 입(2005)〉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2011)〉 〈새벽에 생각하다(2017)〉 〈지독히 다행한(2021)〉 등의 시집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예대상 수상자인 김동호 위원장은 '한국영화의 외교관', '부산국제영화제의 아버지'로 불리며 세계 주요 영화제를 석권하고 있는 'K-무비'의 개척자이다. 김 위원장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1988년 영화진흥공사 사장을 하며 영화와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영화불모지였던 부산을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가 개최되는 도시로 끌어올렸다. 부산국제영화제 초대 집행위원장으로서 2010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도 영화계를 위해 다양한 활동 중이다.

2023년 만해축전의 백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거행된다. 만해축전은 동국대와 강원도, 인제군, 조선일보, (재)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유심작품상 시상식을 비롯해 학술행사, 문화예술 행사 및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달라이 라마,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전 대통령, 함세웅 신부, 마리안느 스퇴거 전 소록도 간호사, 조정래 소설가, 모옌 노벨문학상 수상자, 산학인 엄홍길 등이 있다.

평화대상 수상자



세이브 우크라이나

실천대상 수상자



더프라미스 (이사장 묘장스님)



곽병은 원장

문예대상 수상자



천양희 시인



김동호 위원장

남해 용문사 단청들을 만나다

용문사, 8월 9~15일 경인미술관서 특별전

'보물' 대웅전 단청들 첫 공개
이수예 교수 등 佛母들 전시도
전통–현대 불교미술 흐름 확인

임진왜란 승군들의 호국도량이었던 남해 용문사의 고색창연한 단청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광복절을 앞두고 열린다.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는 오는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1, 2층에서 '수국사찰 남해 용문사 특별전'을 개최한다. 개막식은 8월 10일 오후 1시.

이번 전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동국대 불교미술전공이 진행한 남해 용문사 대웅전 단청기록화 사업을 통해 재현된 작품들을 일반에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현대 불화계에서 손꼽히는 동국대 출신 중견 작가인 이상배(전 한국불교미술협회장), 박진명(영산문화재연구소 대표), 김석곤(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교수), 이수예(동국대학교 불교미술전공 교수), 김정현(한국전통문화교육원 단청심화 객원교수), 심근호(동국대학교 강사), 황대곤(동국대학교 강사), 이정영(동국대학교 강사) 등이 창작불화 작품 40여 점과 용문사 전통 단청 재현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불교미술을 아우르는 전시 콘셉트를 확인할 수 있다.

전시회는 중견 작가들의 창작경인미술관 제1전시장 1층은 현재 불교미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동문 작가들의 작품을 위주로 배치하고, 2층은 남해 용문사 대웅전 단청 가운데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엄 문양들을 엄선했다.

남해 용문사는 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사의 말사로, 신라 문무왕 3년(663) 원효 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이 절의 승려들이 승병으로 참여해 왜군과 싸웠는데, 이 때 절이 화재로 소실됐다. 이후 1661년(현종 2년) 학진(學進)이 인근 보광사(普光寺) 건물을 옮겨와 중창했고, 용연(龍淵) 위쪽에 터를 잡았다고 해서 용문사라고 이름을 붙였다. 임란 이후 호국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숙종 때는 나라를 지키는 절이라며 수국사(守國寺)로 지정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과 천왕각, 명부전, 봉서루, 칠성각, 산신각, 요사 등이 있으며 사내 암자로는 1751년(영조27)에 세운 백련암과 염불암이 남아있다. 특히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18세기 이후 서남해안 지역 불전 건축 경향과 수려한 장엄 기법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 보물로 지정됐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전체적으로 금단청이 화려하게 시문돼 있으며, 주간포마다 용머리와 봉황이, 살미에는 장식성이 강한 연꽃, 연봉이 초각돼 있다. 대웅전 내부 단청의 가장 큰 특징은 천장부에 양각으로 곳곳에 새겨진 어문, 용문, 모란문 등의 동식물 장식인데 이는 바닷가 건축물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에 용문사는 2018~19년까지 동국대학교 불교미술전공(책임연구원 이수예 교수)에 의뢰해 대웅전 내외에 장식된 단청을 전통재료와 기법, 첨단 보존과학 방식으로 기록하고 DB작업을 완료했다.

주지 승원 스님은 "용문사는 호국사찰로 숙종임금의 각별한 관심으로 절의 재건에 국가적 지원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며 "이번 전시가 조선 후기 불교건축의 아름다움과 수준 높은 전통 단청의 장엄미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을 주관했던 이수예 동국대 교수도 "국가에 소속된 당대 최고 장인들을 모셔 수준 높은 목조건물을 조성하고 최고수준의 장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조선의 불모(佛母)들이 자신이 가진 최고의 신앙심과 기술을 온전히 담아 이뤄낸 이상세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했다. (02)462-9994

신성민 기자



기록화된 남해 용문사 대웅전 단청.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